

대학생 문제음주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 측정 및 음주행동과의 관계

김 중 철[†]

이 홍 표

이 봉 건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한국마사회 상담센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문제 음주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고 자동적 사고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음주전 자동적 사고를 측정,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부정적 사건회상, 부정적 자기평가,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분노감의 4개 요인이 산출되었으며 내적 일치도는 .94이었고 반분 신뢰도는 .87이었다. 문제 음주자는 비문제 음주자에 비하여 음주전 자동적 사고 정도가 높았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 중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부정적 사건회상, 분노감, 부정적 자기평가 등의 자동적 사고는 음주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적었다.

주요어 : 문제음주, 음주전 자동적 사고, 음주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중 철 /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신경정신과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5
TEL : 032-510-5660 / FAX : 032-5058994 / E-mail : kccpsy@chol.com

사회학습 이론(Abrahams & Niaura, 1987)에 의하면 음주는 학습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후에 공식적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이루어진다(이민규, 1993). 대학 시절은 본격적인 음주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신행우, 2004) 대학생이 되면서 본격적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 시절은 앞으로의 음주 습관이 학습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율은 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1983년 진단적 면담(Diagnostic Interview Schedule)을 이용한 김광호, 신정호와 이만홍(1983)의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 28.3%, 여학생 5.8% 등 대학생의 알코올장애 평생 유병율이 24.5%로 조사되었다. 최근 장승욱, 윤혜미, 이해경 및 최현숙(2001)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의 96.8%가 음주자였으며, 천성수 등(2000)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 중 일주일에 2-3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32.1%, 일주일에 1회 이상 폭음 비율이 48.4%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음주 문제나 알코올중독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생리학적 접근, 학습적 접근, 성격적 접근, 사회적 접근 및 인지적 접근 등이 있다(이영호, 2000). 그 중 인지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자신, 세계, 미래에 대한 인지도식과 믿음이 알코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음주 행동과 관련된 문제의 취약성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지적 관점에 의거하여 Beck, Wright, Newman과 Liese(1993)는 중독성 내담자들에게 예기 신념, 구원 지향적 신념, 촉진적 혹은 허용적 신념 등 3가지 유형의 신념이 있다고 보았다. 예기 신념은 음주를 할 때 알코올의 보상 효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며, 이러한 예기 신념에는 만족이나 도피, 사교성과 자신감 증가 등이 포함된다. 구원 지향

적 신념은 알코올이 불편한 상태를 없애주거나 경감시켜 줄 것이라는 신념으로 긴 장감소의 기대가 이러한 신념에 해당된다. 문제 음주자들은 알코올이 긴장,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Cooper, Russell, Skinner, Frone, & Mudar, 1992; Faber, Kharari & Douglas, 1980). 셋째로 촉진적 혹은 허용적 신념은 음주로 인한 해로운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수용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념으로, 자신의 음주 문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김진숙과 양익홍, 2002).

국내에서도 음주에 대한 신념 혹은 기대가 음주행동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규(1993)는 Rohsenow(1983)가 제작한 알코올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이하 AEQ)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알코올의 부정적 효과, 사회적 촉진 효과, 긴장 감소 효과, 성기능과 공격성의 향진 효과, 자기 주장성의 증대 효과 등 5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민규(1993)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 대학생에게는 음주 기대 효과가 없었던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음주에 따른 사회적 촉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음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음주 빈도가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알코올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할수록 음주량이 증가하지만 부정적 기대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음주를 절제하게 되며, 스트레스와 음주 행동을 알코올 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중재함을 시사하였다.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황민복, 이민규와 주경채(1993)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알코올 효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나 사회적 촉진에 대한 기대, 성적 각성이나 공격성과

자기 주장성의 증대에 대한 기대가 정상인과 같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긴장 감소에 대한 기대가 알코올중독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진숙과 양익홍(2002)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음주행동 촉진 신념질문지를 개발하여 음주문제 부인과 무기력 요인이 알코올중독 심각성의 39.5%를 설명함을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음주에 대한 신념이나 사고가 음주행동이나 문제 음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기존의 음주 기대나 신념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음주와 관련되어 음주에 초점을 맞춘 초점 지향적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음주행동이나 문제 음주를 유발하는 요인들에는 음주와 직접 연관된 기대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광범위한 기대나 과거의 회상, 자동적 사고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음주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생활 스트레스나 알코올에 대한 기대가 생활 요인을 매개하기도 하고 매개하지 않기도 하는데 남학생들에게는 음주 기대가 중요한 예측 요인이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주 기대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작용하지 않거나 부적이었고(Rohsenow, 1983), 음주빈도나 음주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음주기대보다 생활 스트레스와 주변의 음주 친구 수가 중요한 요인이었다(이민규,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직접 연관된 초점 지향적 방법을 벗어나 음주를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인지적 요인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먼저 (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를 유발하는 광범위한 인지적 요인, 즉 음주 이전의 자동적 사고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측정 도구를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이후 (2) 이렇게

정량화된 도구를 이용, 대학생 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속도와 문제성 음주와의 연관성 혹은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충북과 대전 지역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과 교양심리학을 수강하는 19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 재인법과 사고 생산법을 이용, 예비문항 풀을 수집하였다. 사고 생산법 절차에 의한 114명의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19.5세($SD=2.46$)였고 남성 76명(66.7%), 여성 38명(33.3%)이었다. 또한 사고 재인법에 의한 절차에 76명의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0.9세($SD=2.72$)였고 남성 46명(60.5%), 여성 30명(39.5%)이었다.

예비문항 풀 선정 후 선정된 예비문항을 420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231명(55%), 여성 189명(45%)이고 평균 연령은 19.96세($SD=2.28$)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312명(74.3%), 2학년 61명(14.5%), 3학년 33명(7.9%) 그리고 4학년 14명(3.3%)이었다.

420명 중에서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지(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이하 MAST) 점수 결과, 0-5점의 비문제 음주자는 247명(58.8%)이고 6점 이상의 문제 음주자는 173명(41.2%)이었다. 비문제 음주자의 평균 연령은 19.91세($SD=2.26$), 남성 122명(49.4%), 여성 125명(50.6%)이었으며 문제 음주자의 평균 연령은 20.03세($SD=2.31$)이었고 남성 109명(63.0%), 여성 64명(37.0%)이었다.

도구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지(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MAST)

MAST는 Selzer(1971)에 의해 고안된 알코올중독 선별 척도로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AST는 음주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장환일과 전진숙(1985)에 의해 21문항으로 표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자의 기준으로 박병강(2000)이 알코올 남용 이상의 알코올 사용 장애로 MAST 점수 6점(민감도 84.8%, 특이도 76.0%) 이상을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MAST의 내적 일치도는 .79, 반분 신뢰도는 .72이었다.

Beck의 우울증척도 한국판(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는 21문항의 설문지로, 채점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영호와 송종용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이었다.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TAI는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STAI는 한덕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되었으며 특성불안의 신뢰도는 .89였고 상태불안의 신뢰도는 .93이었다.

자동적 사고 질문지-부정형(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 ATQ-N)

ATQ-N은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Hollon과 Kendall(198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우울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내용을 기술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TQ-N 총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과 윤호균(199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적 일치도는 .93, 반분 신뢰도는 .94였다.

자동적 사고 질문지-긍정형(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 ATQ-P)

ATQ-P는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Ingram과 Wisnicki(198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ATQ-P 총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과 윤호균(199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4였다.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

DAS는 Weissman과 Beck(197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우울증 환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신념내용을 기술한 4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DAS 총점이 높은 사람은 역기능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4)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79, 반분 신뢰도는 .84였다.

음주 정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음주 정도 측정치를 이용하였는데 회 평균 주량과 음주 속도 그리고 음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하나씩의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들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절차

예비질문지의 문항 풀(item pool)을 구성하기 위해 19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 생산법과 재인법의 두 가지 절차를 사용하였다. 사고 생산법 집단에게는 1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 전에 생각나거나 발생하는 모든 생각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Hollon & Kendall, 1980; Ingram & Wisnicki, 1988). 사고 재인법 집단에서는 76명을 대상으로 음주 전에 있었을 상황(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 때 자신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사고들을 직접 기술하도록(조용래, 2000) 하였다. 사고 생산법은 음주 전에 머리 속에 떠오른 사고들을 모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체점체계를 연구주제에 맞추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집단으로 실시하기가 어렵고 체점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이정운, 1996; Glass, Merluzzi, Biever & Larsen, 1982). 이에 비하여 Hollon 등(1980)과 Ingram 등(1988)에 의한 사고 재인법은 음주욕구를 유

발하는 상황을 제시한 다음 사람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 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귀원, 김명정, 김성곤과 변원탄(1996)의 6가지 음주 욕구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하여 총 935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중 (1) MAST 기준에서 6점 이상의 문제 음주자가 기술한 문항만을 선택하였으며 (2) Hollon 등(1980)과 Ingram 등(1988)의 배제기준(표 1)을 사용하여 100문항으로 분류하여,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간추려진 예비 100문항을 420명의 대학생들에게 재실행하였다. MAST 점수 평균 6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음주 집단과 비문제 음주 집단의 t 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p < .01$)가 유의한 45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축약된 45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통 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 직교 회전을 실행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사교회전을 실행하였다. 경험적 요인분석에서는 (1) eigenvalue가 1 이상인 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 각각의 요인에 대한 공통분(communality)이 .4 미만인 문항과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4 이하인 문항을 배제하였고 (3) 요인구조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요인 부

표 1. 문항 선별 배제기준

- ① 문제음주자의 문항 중 중복된 문항을 1개의 문항으로 선정한다.
- ② 문장이 아닌 단어로 응답한 문항은 배제한다.
- ③ 사고가 아닌 행동을 기술하였거나 상황을 기술한 문항은 배제한다.
- ④ 문제음주 집단과 정상집단 피험자 중 중복된 문항은 배제한다.
- ⑤ 주 연구자 이외 임상심리 교수 1인과 합의, 문제 음주자의 사고라고 동의된 문항을 포함시킨다.
- ⑥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2인과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2인 및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 2인이 참여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논의한다.

하량이 2개 이상의 요인에서 .1이하인 문항 역시 배제하였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외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제 음주 집단 173명을 대상으로 하여 MAST, BDI, 상태-특성불안, DAS, ATQ-N, ATQ-P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문제 음주자와 비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정도를 변량 분석, 비교하였다. 또한 음주전 사고가 음주행동이나 문제 음주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속도에 대한 상관분석 및 음주전 사고의 각 요인을 독립변인을 하여 집단 투입과 개별 투입에 의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결 과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요인 분석 결과와 신뢰도 검증

45문항을 절차에서 기술한 경험적 요인분석 기준에 따라 배제한 결과, 35문항이 확인되었다. 이 35문항으로 다시 주축분해법, 직교 회전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비교적 명료하게 도출되었다. 4개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50.94%였다. 각 요인의 설명량은 요인 1(부정적 사건회상)은 14.66%, 요인 2(부정적 자기평가는 14.11%, 요인 3(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은 11.44%, 요인 4(분노감)는 10.73%였다. 사각 회전에서도 동일한 4개의 요인구조가 도출되었다.

경험적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이름은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이미 지나간 나쁜 일들이 떠오른다.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이럴 때 도와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집안에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난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부정적 사건 회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문항은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할까?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하나?” 등의 10문항으로 “부정적 자기평가”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오늘은 술 마실 맛이 나겠다. 나는 술이 좋다.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기분이 좋을 거야” 등의 10개의 문항으로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명명하였다. 요인 4의 문항은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고 싶어진다” 등의 5문항으로 “분노감”으로 명명하였다.

문항 총점 상관에서 개별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 계수는 .40부터 .68까지의 범위에 속하였다. 대학생 문제음주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 척도의 Spearman-Brown 교정 반분 신뢰도 계수는 $r=.87$ 이고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4로 높았다. 4개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 역시 .83~.8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3에서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하위 요인들 간에는 .41에서 .55에 이르는 상관이 있는 바, 하위 요인간의 연관성이 높았다. 이로 볼 때 사고회전을 실시함이 타당하나 사고회전에 따른 요인구조는 직교회전 결과와 동일하였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외적 타당도 검증

표 4에서 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음주전 자동적 사고와 MAST, BDI, 상태불안, 특성불안, DAS, ATQ-N, ATQ-P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에 부정적 사건회상,

표 2. 대학생 문제음주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에 대한 요인분석과 내적 일치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동분
이미 지나간 나쁜 일들이 떠오른다	.749	.219			.617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759	.167	.130	.110	.633
이럴 때 도와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661	.257	.234		.565
집안에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난다	.696	.204		.133	.548
내 기분을 누가 알아줄까	.635	.202	.138	.252	.527
내가 원했던 것을 못한 것이 생각난다	.566	.190	.165	.388	.534
내 맘을 어떻게 해야 다 이해시킬 수 있을까	.541	.212	.215	.321	.487
첫사랑이랑 헤어지던 때가 떠오른다	.535		.255	.157	.380
친구들에게 전화할까?	.503		.437		.446
당신이 그렇게 잘났나! 적어도 너보다는 잘난 사람이 될 거야	.453	.265	.151	.429	.481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할까?	.235	.813			.720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	.224	.756			.626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하나?	.249	.738		.213	.656
진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322	.659	.162	.103	.574
이대로 죽고 싶다.	.141	.607		.278	.470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힐거다		.592	.276	.173	.459
자꾸만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569	.340		.444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239	.526		.394	.490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가 보다	.232	.550			.363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까?	.321	.477		.343	.450
오늘은 술 마실 맛이 나겠다	.195		.733		.578
나는 술이 좋다			.719		.525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102	.210	.636	.141	.479
기분이 좋을 꺼다	.323	.133	.585	.164	.492
오늘은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시자	.146		.500	.420	.450
그 동안 못했던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349	.176	.452	.214	.403
이럴 때는 술 마시면 취하는데	.349	.224	.477		.401
술을 마시면 괴로움이 잊혀질 꺼다	.310	.283	.443	.195	.410
이런 술자리는 별 것 아니다	.161	.110	.439	.155	.255
이 사람은 실수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 줄 거다		.318	.467	.126	.339
다 때려부수고 싶다.		.197	.137	.797	.703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고 싶어진다	.145	.175		.751	.621
친구들에게 말을 격하게 하고 싶다	.106	.116	.163	.776	.653
즐거움에 취해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다	.252		.321	.599	.528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	.394	.255	.267	.481	.523
회전부합자승합	5.13	4.94	4.01	3.75	
설명량	14.66	14.11	11.44	10.73	
Cronbach α	.88	.88	.83	.83	

주. 요인 부하량에서 .1 이하는 생략.

주. 요인 1=부정적 사건회상, 요인 2=부정적 자기평가, 요인 3=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 4=분노감.

표 3.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하위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1.00			
요인 2	.47 **	1.00		
요인 3	.55 **	.41 **	1.00	
요인 4	.43 **	.48 **	.43 **	1.00

주. 요인 1=부정적 사건회상; 요인 2=부정적 자기평가; 요인 3=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 4=분노감.

** $p < .01$, * $p < .05$.

표 4. 음주전 자동적 사고와 유관 척도들과의 상관

		음주전 자동적 사고				
		총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MAST		.40 **	.32 **	.28 **	.41 **	.32 **
BDI		.55 **	.49 **	.59 **	.33 **	.35 **
상태불안		.31 **	.30 **	.34 **	.11 *	.23 **
특성불안		.29 **	.29 **	.34 **	.08	.20 **
DAS		.35 **	.27 **	.36 **	.23 **	.26 **
ATQ-N	총점	.66 **	.57 **	.74 **	.37 **	.46 **
	N 1	.63 **	.58 **	.69 **	.36 **	.40 **
	N 2	.54 **	.39 **	.66 **	.29 **	.44 **
	N 3	.57 **	.46 **	.66 **	.30 **	.45 **
ATQ-P	총점	.07	.09	-.14 **	.19 **	.09
	P 1	-.05	-.04	-.20 **	.09	.02
	P 2	.16 **	.18 **	-.06 **	.26 **	.13 **
	P 3	.09	.12 *	-.12 *	.19 **	.09

주. 요인 1=부정적 사건회상; 요인 2=부정적 자기평가; 요인 3=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 4=분노감; MAST=문제음주 척도; BDI=Beck 우울척도; DAS=역기능적 신념; ATQ-N=우울증의 자동적 사고-부정형(N1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욕구, N2 부정적인 자기상과 부정적인 기대, N3 무기력과 의욕 상실); ATQ-P=자동적 사고-긍정형(P1 일상생활의 안락과 만족, P2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P3 업무능력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 $p < .01$, * $p < .05$.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요인들이 포함되고 문제 음주자나 알코올중독자가 부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음주에 탐닉한다는 Cooper 등(1992)의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우울이나 불안 및 이와 연관된 역기능적 신념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연구 결과, MAST와는 $.40(p<.01)$ 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BDI로 평가한 우울점수와는 특히 $.55(p<.01)$ 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증의 역기능적 신념(DAS)과는 $.35(p<.01)$ 및 부정적 사고(ATQ-N)와 $.66(p<.01)$ 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일상생활의 안락과 만족, 업무능력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의 긍정적 사고(ATQ-P)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07, *ns*).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요인 2(부정적 자기평가)는 특히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 사고와 $.59(p<.01)$, $.74(p<.01)$ 의 높은 상관을 보였던 반면 긍정적 사고와는 $-.14(p<.05)$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자기평가보다는 상관이 낮지만 요인 1(부정적 사건 회상)과 요인 4(분노감)도 우울, 불안,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 사고와 .20에서 .57의 상관을 보여 부정적 정서 및 사고와 연관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반면에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명명한 요인 3은 우울, 우울증의 역기능적 신념, 부정적 사고와 .33, .23, .37의 상관을 보이면서도 긍정적 사고와도 $.19(p<.01)$ 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업무능력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 긍정적 하위 2가지 요인에서 .19에서 .26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부적 정서의 지각과 회피 등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

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기대와도 정적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먼저 문제 음주자가 비문제 음주자에 비하여 자동적 사고의 정도가 높은지 비교한 결과, 문제 음주자는 비문제 음주자에 비하여 자동적 사고 정도가 높았다(비문제 음주: $M=66.86$, $SD=18.10$), (문제 음주: $M=81.65$, $SD=19.31$), $F=60.62$, $p<.001$). 또한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비문제 음주: $M=20.75$, $SD=5.81$), (문제 음주: $M=25.29$, $SD=6.09$), $F=56.70$, $p<.001$), 부정적 사건회상(비문제 음주: $M=21.58$, $SD=7.48$), (문제 음주: $M=26.34$, $SD=7.79$), $F=37.84$, $p<.001$), 부정적 자기평가(비문제 음주: $M=16.67$, $SD=5.51$), (문제 음주: $M=19.96$, $SD=6.97$), $F=28.26$, $p<.001$), 분노감 요인(비문제 음주: $M=7.87$, $SD=3.30$), (문제 음주: $M=10.13$, $SD=3.87$), $F=39.87$, $p<.001$) 등의 하위 요인에서도 모두 자동적 사고 정도가 높았다.

문제 음주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가 음주행동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음주전 자동적 사고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음주량, 음주빈도 및 음주속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에서 음주전 자동적 사고와 음주 행동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음주량에 대해서는 요인 3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42, $p<.01$), 요인 1 ‘부정적 사건회상’(.20, $p<.01$), 요인 4 ‘분노감’(.25, $p<.01$)의 상관도 유의하였다. 요인 2 ‘부정적 자기평가’의 상관도 낮지만 유의한 수준이었다 (.13, $p<.05$). 음주 속도에 대해서도 요인 3 ‘알

표 5. 음주전 자동적 사고와 음주행동과의 상관관계

	음주량	음주속도	음주빈도
요인1(부정적 사건회상)	.20 **	.14 **	.21 **
요인2(부정적 자기평가)	.13 *	.12 **	.07
요인3(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42 **	.35 **	.34 **
요인4(분노감)	.25 **	.17 **	.17 **

주. ** $p < .01$, * $p < .05$.

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35, $p < .01$), 이보다 낮지만 '부정적 사건회상',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감'도 .14~.17 ($p < .01$)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음주빈도에 대해서도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34, $p < .01$), '부정적 과거회상'과 '분노감' 역시 .21($p < .01$)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요인 2 '부정적 자기평가'는 음주빈도에 대하여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07, ns).

음주전 자동적 사고 4개 요인을 전체 투입하였을 경우 음주전 자동적 사고가 음주량의 19.8%를 설명하였다($R^2 = .198$, $t = 3.14$, $p < .01$). 음주속도에 대해서는 12.3%를 설명하였으며($R^2 = .123$, $t = 7.11$, $p < .001$) 음주빈도에 대해서는 13.7%를 설명하였다($R^2 = .137$, $t = 7.92$, $p < .001$).

표 6에서 단계별 투입을 통해 가장 설명력

이 높은 음주전 자동적 사고 요인을 알아보았다. 표 6을 보면 4개의 자동적 사고 중에서 1회 음주량에 대하여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요인 3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17.9%를 설명하였으며($Beta = .49$, $t = 9.15$, $p < .001$)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이 부가됨으로서 1.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Beta = -.14$, $t = -2.60$, $p < .001$). 그러나 부정적 사건회상과 분노감 요인은 탈락하였다. 음주속도에 대해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은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11.5%를 설명하였고($Beta = .34$, $t = 7.34$, $p < .001$) 그 외의 요인은 모두 탈락하였다. 음주빈도에 대해서도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이 12.0%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Beta = .41$, $t = 7.94$, $p < .001$)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이 부가되어 설명력이 1.5% 증가하였다($Beta = -.14$, $t =$

표 6. 음주전 자동적 사고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Beta$	t
음주량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179	.49	9.15 ***
	부정적 자기평가	.014 Δ	-.14	-2.60 **
음주속도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115	.34	7.34 ***
음주빈도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120	.41	7.94 ***
	부정적 자기평가	.015 Δ	-.14	-2.65 **

주. *** $p < .001$, ** $p < .01$.

-2.65, $p < .01$). 그러나 역시 부정적 사건회상과 분노감 요인은 탈락하였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 중에서 음주량이나 속도 및 빈도 등의 음주행동에 대하여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이 부가됨으로써 설명력이 증가하였지만 설명력 증가분이 1.4~1.5%의 적은 수준이었고 부적 방향이었다. 또한 부정적 사건회상과 분노감 요인이 탈락하였다. 이는 부정적 사건회상, 분노감, 부정적 자기평가 등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 요인들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 문제 음주자가 음주 이전에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음주전 자동적 사고를 알아보고, 음주전 자동적 사고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학생 문제음주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타당화 하였으며 음주량, 음주속도 및 음주빈도 등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전 상황을 회상시킨 후 자유롭게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문제 음주자와 비문제 음주자의 평균차이 검증과 문항선별 기준을 통해 문제음주자가 보이는 음주전 자동적 사고 문항을 선별한 결과 45문항이 선정되었고 45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4개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요인 1의 설명변량은 14.66%, 요인 2 14.11%, 요인 3 11.44%, 요인 4 10.73%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설명변량

은 50.94%이었다.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요인 1 .88, 요인 2 .88, 요인 3 .83, 요인 4 .83이었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4로 높은 수준이었고 반분 신뢰도 역시 .8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둘째 음주전 자동적 사고의 요인 1은 '부정적 사건회상', 요인 2는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 3은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 4는 '분노감'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음주전 자동적 사고와 하위 요인들은 문제음주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사고와는 상관이 없거나 부적인 반면 Beck 우울척도, 우울증의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 사고와 상관이 높았다. 특히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은 우울,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 사고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부정적 사건 회상과 분노감 요인도 부정적 정서 및 사고와 연관이 있었다. 반면에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은 우울이나 부정적 사고 등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셋째 음주전 자동적 사고는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도가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3개요인은 영향력이 없거나 낮았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는 음주행동에 12.3~19.8%의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4개요인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음주전 자동적 사고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음주속도, 음주빈도, 음주량에 대해서 각각 11.5~17.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음주량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 빈도나 속도가 증가하며 특히 한번 음주를 할 때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이유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음주와 연관된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운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음주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에서는 음주 결과에 대한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hristiansen, Goldamn, & Inn, 1982; Brown, Goldman, & Anderson, 1980; Oei & Baldwin, 1993; Reese, Chassin & Molina, 1994). Brown 등(1980)은 성인의 음주 기대를 요인 분석하여 경험의 긍정적 전환, 사회적 신체적 쾌락의 증가, 성적 능력과 경험의 향상, 힘과 공격성의 증가, 사회적 주장력의 향상, 긴장의 감소라는 6가지 긍정적 기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Marlatt와 Rohsenow(1989) 역시 인지가 음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알코올 효과에 대한 신념이 주장적 행동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문제음주자의 치료에 알코올 효과의 긍정적 기대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Reese, Chassin, & Molina, 1994).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사건회상 및 분노감 등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은 탈락하였으며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만이 1.4~1.5%의 영향력을 부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동적 사고 요인들 간의 공분산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음주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정적 사건회상은 음주량, 음주속도나 빈도 등에 .14~.2%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바, 음주행동에 적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부정적 자기평가 등이 음주행동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회귀분석에서는 부정적 자기평가가 부가될 때 부적 방향으로 작

용, 부정적 자기평가가 증가할수록 음주량이나 빈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로 볼 때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intervening)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부정적 자기평가 등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통하여 음주행동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음주전 자동적 사고 요인들은 차원이 다소 다르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음주를 한 후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기대, 기분 전환, 대인관계의 긍정적 수용과 정서적 의존, 음주문제의 간과 등 음주상태나 음주를 한 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들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 사건회상 요인은 부정적인 사건이 촉발되거나 과거의 부정적 사건이 회상되면서 부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외부사건과 연관된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감 요인은 부정적 사건 회상과 연관된 인지적, 정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자신을 판단, 질책하고 비하하며 우울감이 가중되거나 분노 정서가 촉발되는 것으로 시사된다. 즉 부정적 사건 회상이나 분노감, 부정적 자기평가 등의 요인은 음주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보다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인 반면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음주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촉발요인으로, 부정적 자기평가 등이 음주와 가장 직접 연관된 인지적 요인인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매개하여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적 사건회상 및 부정적 자기평가는 우울증의 촉발 요인이자 인지모형에서 인지 삼제(cognitive triad)중 하나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Beck, 1976)이다. 또한 요인 4의

분노감처럼 부정적 사건이나 부정적인 과거가 회상되면서 짜증과 화 등 부정 정서를 표출하고 행동화하고 싶은 욕구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강화시키거나 회피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문제 음주자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Cooper, 1994; Cooper et al., 1992; Cutter & O'Farrell, 1984; Farber et al., 1980). 즉 문제 음주자들이 부정적인 자기상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부정 정서 상태에 쉽게 빠지며 이러한 부정 정서 상태를 음주를 통해 회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를 촉발시키는 직접적이고 좁은 인지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음주 전의 자동적 사고 유형을 탐색하고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알코올 기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제로 문제 음주를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는 광범위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음주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라는 인지적 요인을 매개하여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에만 한정되었고 실제 성인 문제 음주자나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는 검증되지 못하였는바, 연구 결과를 일반 성인이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학생 문제 음주자에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문제 음주자들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문제 음주의 정도가 높다(윤희미,

1999; 이민규, 1993; Rohsenow, 1983).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알코올의존에서는 주로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긴장과 불안 등 부정 감정의 해소를 위해 음주에 의지한다(김경빈, 2000; 황민복 등 1983). 대학생 문제 음주자는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성인 알코올의존 사이에는 부정 감정의 회피가 음주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 문제음주자의 경우에도 부정적 사건회상,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감 등의 부정 정서가 있었지만 성인 알코올의존자에서와 달리 그 영향력이 적거나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매개하여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성인 알코올의존 환자 등의 음주 태도나 음주의 양적, 질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 장면에서 성인 문제 음주자나 알코올 의존자의 음주전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주 기대와 부정 감정의 회피가 대학생 문제음주자와 알코올 의존자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 100-111.
- 권석만, 윤호균 (1994). 한국판 자동적 사고 척도의 개발과 활용. *학생생활연구*, 29, 10-25

- 김경빈 (2000). 알코올에 대한 임상의학적인 문제. 한국알코올과학회 창립기념학술세미나.
- 김광호, 신정홍, 이만홍 (1983). 일부대학생 집단에서의 주정중독, 담배의존, 병적 과식욕증, 및 병적 도박의 유병율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7, 1042-1052.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숙, 양익홍 (2002). 음주행동 촉진신념 질문지의 타당화: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23-245.
- 박병강 (2000). 알코올리즘 선별검사 도구들의 진단 효율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행우 (2004). 남자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발달과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141-156.
- 윤혜미 (1999). 대학생 절주 사업의 실제. 제2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대한보건협회.
- 이민규 (1993). 음주 행동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요인. 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2, 165-179.
- 이영호 (2000). 알코올 관련 장애. 원호택 외 공저.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정운 (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승옥, 윤혜미, 이혜경, 최현숙 (2001). 대학생 음주실태와 정책대안. 한국음주문화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의 음주문화와 알코올문제 예방 및 치료 재할 자료집, 13-24.
- 장환일, 전진숙 (1985). 한국에서 Michigan 주정 의존 선별검사의 적용에 대한 예비조사. 신경정신의학, 24, 46-53.
- 조용래 (2000).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831-851.
- 전성수, 이주열, 이용표, 고복자, 정재훈, 박종순 (2000). 대학사회의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한귀원,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알콜의존 환자에서 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조건화 자극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4), 809-819.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 - 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93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505-512.
- 황민복, 이민규, 주경채 (1993). 알코올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2, 962-970.
- Abrahams, D. B., &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 General Psychiatry*, 4, 53-63.

- Beck, A. T., Wright, F. D., Newman, C. F., & Liese, B. S. (1993). *Cognitive Therapy of Substance Abuse*. New York: Guilford.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419-426
- Christiansen, B. A., Goldman, M. S., & Inn, A. (1982). Development of alcohol-related expectancies in adolescents: Separating Pharmacological from Social-Learning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336-344.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 Mudar P. (1992). Stress and Alcohol use :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utter, H. S . G., & O' Farrell, T. J. (1984). Relationships between reasons for drinking and customary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321-325.
- Faber, P. D., Khavari K. A., & Dougla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80-781.
- Glass, C. R., Merluzzi, T. V., Biever, J. L., & Larsen, K. H.(1982).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tatement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7-55.
- Hollon, S. D., & Kendall, P. C. (1980). Cognitive self-statement in depression: Development of an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383-395
- Ingram, R. E., & Wisnicki, K. S. (1988). Assessment of positive automatic cogni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8-902
- Marlatt, G. A., & Rohsenow, D. J. (1980). Cognitive processes in alcohol use: Expectancy and balanced placebo design in advances in substance abuse. In: *Behavioral and Biological Research*. Ed by Maralow, NK, Greenwich, JAI Press
- Oei, T. P., & Baldwin, A. R. (1994). Expectancy theory: a two-process model of alcohol use and abuse. *Journal of study on alcohol*. 55(5), 525-534.
- Reese, F. L, Chassin L., & Molina, B. S. (1994). Alcohol expectancies in early adolescents: predicting drinking behavior from alcohol expectancies and parental alcoholism. *Journal of study on alcohol*. 55(3), 276-84
- Rohsenow, D. J. (1983).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versu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52-756.
- Selzer, M. L. (1971).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The quest for a new diagnostic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89-94.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al Therapy*, Chicago.

원고접수일 : 2005. 3. 18

게재결정일 : 2005. 6. 23

Measurement of The Automatic Thoughts before Drinking for Problem Drinkers and the effect of Alcohol drinking behaviors

Choung-Choul Kim^{*} Heung-Pyo Lee^{**} Bong-Keon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Our Lady of Mercy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Racing Associ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for the measurement of the automatic thoughts scale before drinking of problem drinkers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automatic thoughts to drinking behavior. A battery of scales was administered to 420 university student. Internal consistency(.94) and Guttman Split-half Reliability Coefficients($r=.87$) was high.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show that automatic thoughts scale had four factors. Factor analysis yielded four factors are recall of negative event, negative self-evaluation, alcohol of positive expectancy and anger. The positive expectancy to alcohol effects had most effect on drinking behaviors such as drinking speed, frequency and quantity. But automatic thoughts before drinking including recall of negative event, negative self-evaluation and anger had a little direct effect on drinking behaviors.

Keywords : automatic thought, problem drinking, drinking behaviors